

단기선교 사역보고서

사역기간	2019년. 7월. 30일. ~ 2019년. 8월. 6일.				7박 8일	
국가별 팀명	미얀마 6 팀				사역지	미얀마 만달레이
팀장/서기	팀장	안응화 권사	서명	서기	임우찬 성도	서명
보고일자						
상세 사역 보고						
사역 형태	어린이 사역					
7월 31일(수요일)	오전	기도회 성도들과 연합팀 어린이 사역 준비		오후	어린이 사역 / 학교앞 전도 노방,축호전도	
	사역내용			사역내용	물품 구비 및 진행 방향 회의	
8월 1일(목요일)	오전	기도회 성도들과 연합팀 어린이 사역 준비		오후	어린이 사역 / 학교앞 전도 노방,축호전도 / 시설보수	
	사역내용	심방전도/ 노방,축호전도 어린이 사역 진행 준비		사역내용	설교(파우크) 악어캐스터넷츠 만들기 율동(뚝뚝뚝뚝, 사랑해축복해) 외 4곡	
8월 2일(금요일)	오전	기도회 성도들과 연합팀 어린이 사역 준비		오후	어린이 사역	
	사역내용	심방전도/ 노방,축호전도 어린이 사역 진행 준비		사역내용	분광기 만들기 / 율동 / 설교 / 주기도문 외우기	
8월 3일(토요일)	오전	어린이 사역		오후	어린이 사역	
	사역내용	심방전도/ 노방,축호전도 어린이 사역 진행 준비		사역내용	손거울 만들기 / 율동 / 설교 / 무언극 / 주기도문	
8월 4일(일요일)	오전	주일예배(연합팀) 초청잔치 준비 찬양, 기도(김희동)		오후	초청잔치	
	사역내용	율동 / 게임(공 돌리기) 찬양 및 율동 / 총평대회 및 폐회에배		사역내용	벤엘교회 성도 6가정과 소개 및 교제 나눔	
8월 5일(월요일)	오전			오후		
	사역내용			사역내용		
8월 6일(화요일)	귀국					

사역총평 및 개선사항	총평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눅 4:42~44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서 목적을 이루는 사역이었다. 서기로서 이번 선교를 준비하는 훈련과정과 그리고 선교지에서 사역과정, 경건의 시간 등 모든 움직임들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시야에서 이번 선교를 다시금 되새겨 보았을 때 모든 팀원들과 선교사님들이 최선을 다 했고 순간순간 말과 행동으로 움직여 땀흘리는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만 기뻐받아주시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부족함 없이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개선사항	구원의 본질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기는 가장 큰 유혹은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다 . 그리스도인은 평생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한다. 수화물 무게 다는 기계 새로 교체 바랍니다. 저녁 피드백 시간을 가질 때 요구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고 다음날 그 항목들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 및 진전 상황을 기록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선교 팀장보고서

❖ 사역의 방법과 현지의 영적 상황 및 현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고 찾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라 하니” 행 6:4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매우 도전적인 믿음의 여용사(치유를 경험한 가정), 미래의 목회자 전도자로

선교사로 복음의 일꾼양성이 절실하다

❖ 사역지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그 해결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많은 기회들을 놓쳐 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팀장 및 팀원 모두가 사역 기간 중에 선교방침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사역에 동참하였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에 헌신적으로 충실히 수행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다.

❖ 팀 훈련 및 준비과정에서 느낀 점 또는 개선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영적인 준비를 잘해두면 뜻하지 않은 위기나 기회에 대비할 수 있다.

어린이 사역중 만들기 밀작업 준비함으로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혼란없이 차분히 진행되었다.

❖ 이번 사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느낀 점 및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박동진 목사님께서 영성훈련 시작부터 성령충만을 간구기도 말씀으로 연합팀이 영적으로

하나되는 마가의 다락방을 방불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팀사역이었다. 파우크목사님도 지난 5년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각과 태도가 180° 바뀌었다. 또한 통역자 에스더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 착하고 온유한 자이다.

삼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선교사역도 팀을 통해 하는 것

선교는 결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자기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충만하여 주님만 따르는 중장기 선교사가 절실히 필요하며 시급하다.